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15:00~18:00
 - 2024년 12월 11일(수) 14:00~18:00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태암, 손수연, 이효진, 임수연, 임주섭

202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후보) 사업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공연예술 우수 신작 발굴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창작오페라 분야 또한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한국오페라를 찾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신작(후보) 사업은 지원 신청된 총 7건에 대해 1차 서류 검토 및 사전 채점, 이후 심의위원 대면 심의로 진행하였고, 이 중 5건을 선정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 지원작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작품성(50%), 사업계획의 타당성(40%), 기대효과(10%) 등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작품성 측면에서는 창작오페라로써 양식적인 적합성, 소재의 독창성, 대본 및 음악의 예술성, 무대화했을 때 완성도를 예측했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측면으로는 참여 인력의 전문성, 예산 및 사례비 배정의 신빙성, 구체적인 제작 일정 및 관객 개발 계획의 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심의 기준은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체 채점 배분에서 10%로 다소 미미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일동은 해당 작품의 지속가능성, 다시 말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창작오페라로써 이 공연을 지속 해나갈 수 있는지를 매우 주요한 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작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번 사업의 공모 공고문을 살펴보면, 심의 방식과 세부 분야에서 지난해와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단체(또는 개인)의 재량으로 무반주부터 20인조 규모의 실내 관현악단 등 악기 구성을 가능하게 열어두었으며, 새로운 실험으로써의 창·제작 활동 등 창작오페라 형식의 확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인지 올해 지원작들 면면을 보면, 오페라 장르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접근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 장르의 결과는 다른 작품들을 다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사업 지원 경향은 대중성과 탈경계로 특성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의의 제출물, 2차 인터뷰 대상 지원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대중성입니다. 시의성이 돋보이거나 최근 문화예술계(대중문화 포함)에서 흥미롭게 다뤄지는 소재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음악면에서도 순수음악적인 깊이보다는 대중 친화적인 선율과 구성을 따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화산업으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이끌지 못하는 장르에 대한 창작 및 제작자들의 고민이 녹아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적인 면에서도 그간 우리가 인식해 온 오페라와는 다른, 탈경계적인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음악 장르로서 견지해 온 여러 암묵적인 규칙들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동시대 한국 오페라를 위한 실험적 장이 열렸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번 2025년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후보) 공모 창작오페라 분야에서 총 4개의 작품을 실연심의 지원작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작들은 창작오페라로써 각기 다른 개성과 예술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선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 또한 주요 판단 요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내년도에 있을 실연심의에서 이번 심사에 평가한 것 이상의 결과물들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심의위원 일동